

2020. 08. 3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연합뉴스

[기사링크](#)

(요 약) 정부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수소 안전성 상징"

- 하루 12시간 운영하며 60대까지 충전 가능...수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홍보를 위한 상징적 설치
- 정부는 현재 총 45개소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총 310개소로 구축 예정

정부청사 내에 첫 수소충전소가 들어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정부청사 내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가 주요시설로는 국회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사 내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12시간 동안 운영한다. 이번 수소충전소 설치로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이 대폭 확대될 뿐 아니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이점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8개소를 포함해 총 45개소다.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계속 확대해 2022년까지 총 310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과 이중 확인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수소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의 안전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준공식 축사에서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미래차 충전소 현장지원팀과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은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1년 안에 완료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시계획 변경과 입지선정에 힘썼으며,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공급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한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

2020. 08. 3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파이낸셜 뉴스

[기사링크](#)

(요 약) 카카오게임즈, 역대급 수요예측...SK바이오팜 '청약 광풍' 뛰어넘을까

- 9월10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사상 최고 경쟁률 기록
-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도 역대급 흥행 예상... 카카오게임즈 이번 공모 통해 총 3840억 모집 계획

카카오게임즈 공모 개요

공모가	2만4000원
공모청약일	9월 1~2일
공모주식수(일반투자자 공모)	1600만주(320만주)
주식수	
납입일	9월 4일
공모금액	3840억원

하반기 IPO(기업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가 수요예측에서 국내 증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SK바이오팜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거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6~27일 진행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약 1479대 1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IPO 사상 최고이자 상반기 최대어인 SK바이오팜(835.7대 1)의 기록을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국내외

총 1745곳, 이 중 해외 기관투자자는 407개다. 이를 통해 총 공모주 수 1600만주의 70.49%인 1127만7912주를 대상으로 166억7469만8385주가 접수됐다. 참여 물량의 100%가 공모가 밴드 범위(2만~2만4000원)의 상단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게임즈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2만4000원으로 직행했다.

카카오게임즈는 투자자의 관심과 풍부한 유동성 등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흥행에 대한 기대도 높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27일 기준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3조878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기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60조4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6월 청약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SK바이오팜의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SK바이오팜은 일반투자자 청약 증거금이 약 31조 몰리며 2014년 제일모직의 역대 최대 증거금(30조653억원)을 경신한 바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중 유동성은 SK바이오팜 상장 당시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카카오게임즈의 청약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몰리며 몰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카카오게임즈의 낮은 공모가와 향후 성장성도 일반투자자 청약 흥행의 기대 요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상장 후 카카오게임즈의 목표주가를 3만2000~3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는 플랫폼, 퍼블리싱, 개발 등 게임회사로서 모든 밸류체인을 갖췄다"면서 "적정주가(3만2000원) 기준 상장 후 33%의 상승 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2022년까지 다수의 대작 신규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어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의 공모주 청약을 거쳐 9월 1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은 총 3840억 원으로, 카카오게임즈는 개발력 강화, 신규 IP(지적재산권) 및 라인업 확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한 투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0. 09. 0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파이낸셜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587379?sid=001>

(요약)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 만든다...비트코인 다시 '꿈'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에 시동...파일럿시스템구축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 추진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파일럿 시스템은 CBDC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작동되고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상의 지급결제환경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CBDC 연구 추진 계획 중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업무'를 완료했다. 한은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개발 열풍에 동참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급증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CBDC를 구축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연준이 CBDC 사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지 6개월 만이다. **중국은 연준보다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중국 4대 은행인 중국은행·건설은행·공상은행·농업은행과 협력해 선전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법정 CBDC 폐쇄식 사용 시험을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한은의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 소식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선 비트코인 시세가 꿈틀거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7월 말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1만달러를 넘지 못했던 시세가 7월 26일 오후 들어 처음 1만달러를 돌파했다.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지며 지난달 17일에는 1만 2359.06달러까지 올랐다. 그러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하락하더니 6일 연속 1만 1000달러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1만 1189.85달러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투자 붐이 살아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내년 3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각국이 암호화폐 양성화에 초점을 맞춰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건전한 거래 행위를 규제를 강화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돼 암호화폐 시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구축되고 특금법 규제가 생기면 시장교란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길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 09. 0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915012675727>

(요약) 개인도 '태양광 전력' 파는시대...한화·SK·KT 뛰어든 'VPP'눈길

- 기업들이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인 가상발전소 사업에 적극 나서
-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력부터 거래 예정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정책을 펴면서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주체가 갈수록 다양해질 전망이다. 특히 발전소가 아닌 개인들도 주택용 태양광 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장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에 맞춰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에너지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인 '가상발전소(VPP)'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송 의원은 개인이 생산한 10kW 이하 에너지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기사업법에선 발 용량이 큰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력만 한전에 판매하고, 개인이 생산하는 일반용 전력은 남는 것을 한전에 무상 송전해야만 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맥락에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선 개인 간 전력거래가 허용돼왔다. 국내에선 2014년 11월부터 전기사용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돼 운영 중이다. 2019년 2월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까지 개설되며 혼합형 VPP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정부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력을 효율적이고 운영할 수 있는 VPP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025년까지 총 100MW(메가와트) 이상의 서울시민 VPP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울산광역시도 인공지능 기반 VPP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단 **소규모로 건물이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력부터 거래할 계획이다.**

시장 조사기관인 P&S 마켓리서치는 VPP 시장이 2023년 11억87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도 새 시장인 VPP 사업을 선점하려고 적극 뛰어든다.



국내 주요기업 VPP 사업 현황

한화큐셀	2018년 일본 VPP 구축사업 지원 관리자 선정. 2020년 5월 VPP 기업 '스위치'에 투자 2020년 8월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업 'GEI' 인수
SK E&S	2019년 VPP 기업 '일렉트로드 홀딩스' 인수 2020년 6월 에너지솔루션 기업 'STEM' 협력 2020년 7월 에너지솔루션 기업 '선련'과 합작사 추진
KT	2019년 소규모전력중개 서비스 '가이에너지트레이드' 출시 한국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집합발전량 예측 제도 참여

그래픽: 김지영 디자인기자

한화큐셀은 지난 5월 VPP에 특화된 호주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 '스위치단'에 투자를 결정했다. 분산형 에너지 시장에서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는 호주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려는 한화큐셀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한화큐셀은 이달 초에는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 '그로잉 에너지 랩스(GEL)' 이하 젤리까지 인수하며 분산형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만들었다.

한화큐셀이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 판매로 주 수익을 올렸다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패키지를 임대한 뒤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특히 젤리의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남은 전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 있고, 가장 경제적인 요금제도 고를 수 있다.

SK E&S도 미국 VPP 시장 진출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스위스 에너지 회사 수시(SUS)와 손잡고 일찌감치 '일렉트로드 홀딩스'라는 합작사를 세웠다. 지난 6월엔 미국 에너지 솔루션 업체 '스텝(STEM)'과 AI 기반 VPP 운영 계약도 맺었다. SK E&S는 지난달 미국 태양광 설치 1위 기업인 선련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통신기업인 KT도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솔루션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에너지 통합관제 플랫폼 KT-MEG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전력중개 서비스 '기가 에너지 트레이드(GiGA energy trade)'를 출시했다. 이는 VPP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이를 통해 전력 진단과 예측부터 생산, 소비, 거래가 모두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선 개인들이 VPP를 통해 에너지를 사고 팔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분산형 시장을 대비한 VPP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0. 09. 0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80899?sid=101>

(요약) 수소충전소 보조금 상한선 폐지...고가 다중 충전기 설치가능해진다

- 2021년부터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한 번에 두 대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
- 신설과 증설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소차 보급 대수는 가파르게 늘어가지만 수소충전소 설치는 부족

2021년부터 수소충전소에서 한 충전기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수소연료를 충전하는 다중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소충전기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의 시간당 충전가능 차량 대수가 늘면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수소충전소의 충전기 증설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수소차 충전기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한 번에 두 대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수소충전기 한 기당

15억원까지 지원이 됐던 보조금 상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45억원 가량 하는 듀얼 디스펜서(이중 충전기)를 수소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소충전소의 충전기는 1기당 20억원 중후반대다. 현행 정부 보조금은 충전기 1기 당 50% 보조금을 주는 데, 15억원이 상한이다. 이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중 충전기가 설치되면 1개 충전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 상용수소충전소 흐름 예시 (설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정부가 **수소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나선 이유는 수소차 보급 대수는 가파르게 늘지만 수소충전소 설치 속도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소차 충전소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란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하면서 고장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수소차 등록대수는 7700대다. 2018년말 900대에서 86배 늘어난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1만대를 넘길 전망이다. 그런데 충전소는 33곳이 전부다. 그나마 특히 수소차가 많은 서울은 2곳만 운영되고 경기도는 4곳 모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

수소 충전소 설치가 당초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도 보조금 상한선을 없앤 배경으로 지적된다. 관련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2019년 수소 충전소 설치 목표는 50개소였는데, 실제 20개소만 설치됐다. 자연스럽게 30개소분 보조금 예산이 남게됐다. 올해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게 수소차업체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보조금을 증액해 수소충전소 한 곳의 충전 능력을 키우고, 추가 충전소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충전소 신설 뿐만 아니라 증설에도 보조금을 지급기로 했다. 충전기를 늘리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어서 충전소 한 곳당 충전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중 충전기를 설치하면 차량 처리 능력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 경남 창원에서 천연가스 개질(개질改質)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 자체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를 대용량 압축 탱크째로 들여와 충전기에 연결해 운영한다. 천연가스 개질 방식은 L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처럼 천연가스를 대규모 탱크에 저장한 뒤, 이를 분해해 수소를 뽑아내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충전소 대비 대규모 부지와 설비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상용차량이 확대되면서, 천연가스 개질 방식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2020. 09. 0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에너지타임즈

[기사링크](#)

(요약) 전기·소금 동시 생산...한전 100kW 염전태양광시스템 개발

- 염전증발지역에 수중 태양광모듈 설치를 통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염전태양광발전시스템이 개발됨
- 일반 태양광발전설비 보다 발전량 ↑, 소금생산량 또한 ↑... 국내 염전 증발지역 40km²로 4GW 설치 가능한 부지



전남 무안에 설치된 염전태양광발전소 전경.

전기와 소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이 보급될 경우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확대는 물론 염전산업계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갑)는 녹색에너지연구원·SM소프트웨어 등과 공동으로 **수심 5cm 내외 염전증발지역 바다**

에 수중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염전태양광발전시스템(발전설비용량 100kW)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발전과 염전의 설치 조건은 일사량이 많고 그림자가 없으며 바람이 잘 불어야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전 측은 2018년 3월부터 전남 무안에 6kW급 염전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 후 이번에 100kW급으로 용량을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염전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수압에 잘 견디는 태양광발전용 모듈을 설계하고 태양광발전설비와 염전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특히 염전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여름철 염수에 의한 냉각으로 일반 태양광발전설비와 비교할 때 발전량 5%가량을 개선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용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염수 증발시간이 줄어 소금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염전 증발지역 40km²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4GW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만 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중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 등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해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석 한전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염전용 태양광발전기술은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염전기능을 유지하며 전력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기술”이라고 언급한 뒤 “염전태양광발전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는 물론 열악한 염전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이 시스템은 한전과 전남도 간 지역상생협력 그린뉴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 09. 0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 처) 헤럴드경제

[기사링크](#)

(요 약) 나스닥 사상 최초 1만2000 돌파... 백신 개발 ↑ 경기 회복 ↓

-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1만2000선을 돌파했다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0월말 또는 11월초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지를 했다는 점에 기대감 상승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1만2000선을 돌파했다.

코로나19백신 기대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우려도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4.19포인트(1.54%) 오른 3580.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67.8포인트(0.98%) 오른 1만2056.44에 마감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454.84포인트(1.59%) 뚀 2만9100.50에 장을 마쳤다. 다우 지수가 2만9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올랐다. 재료 분야가 2.28% 올랐고, 커뮤니케이션도 2.19% 상승했다. 기술주는 0.92% 올랐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5% 오른 5940.95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1.90% 상승한 5031.74로 장을 마감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DAX)30 지수도 2.30% 오른 1만3243.43으로 장을 마쳤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스탱스(Stoxx) 50지수는 3337.77로 장이 끝나 1.84% 상승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0개 주(州) 정부 등에 '10월말 또는 11월초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하라'는 통지를 했다는 점이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이끌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도 전날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임상 시험을 일찍 종료하고,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백신 후보를 두고 3만명의 자원자를 받아 3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연말께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신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이외에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였다. 전일 발표된 공급관리협회(ISM)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며 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으며, 오토데이터에 따르면 8월

자동차 판매도 1500만 대를 넘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ADP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부문 고용이 시장 전망치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42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8월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전월 535에서 429로 내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외교관이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거나 대사관 외부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위해서는 미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해 미·중 갈등의 불씨를 던졌다.

유가도 경기 회복 지연이 미국 휘발유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는 전날보다 배럴당 2.9%(1.25달러) 급락한 41.5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달 7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4시 현재 배럴당 2.6%(1.17달러) 떨어진 44.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금값도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1.7% 떨어진 온스당 1944.70달러에 마감했다.

환율은 뉴욕외환시장(뉴욕 오후 4시 기준)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인덱스가 0.4% 상승한 92.71에 거래됐다. 유로/달러는 0.56% 내린 1.1846달러를 기록했다. 파운드/달러는 1.3346달러로 0.28% 낮아졌다. 달러/엔은 106.19엔으로 0.22% 높아졌다.

반대로 위안화는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달러/위안 역외환율이 0.02% 하락한 6.8357위안에 거래됐다.

2020. 09. 04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에너지타임즈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7385>

(요약) 새만금 재생E 계통연계...지역단체, 한수원 부담주체 두고 공방

- 지역단체는 한수원에 계통연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으나 뒤늦게 한수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이익줄이는 의도라고 지적하자 한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으로 건설돼야 할 송전선로 건설비용
등을 포함한 계통연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을 두고 지역단체와 한수원이 날을
세우고 있다.



지역단체는 한수원에서

계통연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돼 있으나 뒤늦게 한수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하자
한수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놔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는 지난 2 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지역에서 발전설비용량 300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통해 나온 이익을 계통연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키로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새만금지역 다른 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 년 2 월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에 각계의견수렴 등을 위해 새만금 인근지역 시·군
대표와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등 18 명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자사가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 기간 내 전력망 구축과 관련 해결방안으로 새만금지역 내
조성될 발전설비용량 2100MW 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한 인허가·설계·계통연계사업 등을 총괄하겠다는 것이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 협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하던 당시 재생에너지사업 중 난제였던 계통연계사업을 고민했고
그러던 중 한수원은 새만금지역에 조성된 2100MW 규모 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한 인허가·설계·계통연계 등을
총괄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300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계통연계가 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한수원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계통연계 문제를 해결할 경우 나머지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논란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불려온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단체 측은 2100MW 규모 계통연계사업을 한수원이 맡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며, 또 한수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계통연계사업 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할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수원 측은 이 민간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로 2018 년 10 월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관련 비용을 먼저 투자한 뒤 인허가·설계까지 추진하고 앞으로 선정될
재생에너지사업자가 그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현재 한수원 새만금사업추진단 실장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계통연계는 발전사업자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는 같은 부지에 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개별사업자가
따로 계통연계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낮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고 한수원이 초기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은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계통연계사업은 발전사업자 몫이며, 발전사업자는 이 사업을 완료한 후
한전에 기부하면 한전이 이 설비를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협의회는 한수원에 300MW를 100MW 단위로 분할발주를 요구했으나 300MW 단일공사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설계서 등에 의해 확정된 공사와 관련 국가계약법에 의거 분할이 불가하다는
공사 분할계약금지에 저촉되고 법률기관·대주단·정부 등과 협의한 결과 분할발주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협의회는 한수원 지분 81%와 현대글로벌 지분 19%로 구성된 새만금솔라파워가 2019 년 1 월 설립했으나
참여기업인 현대글로벌은 이보다 3개월 후인 2019 년 4 월 설립해 시기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현대글로벌은 2011 년 8 월 설립됐으며, 당시 현대그룹 지주회사로서 한수원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 년 4 월 기업 분할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 09. 04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 처) 한국경제 9/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266151>

(요약) 버려진 플라스틱이 돈이다..화학업계, 재활용사업 '울인'

- 국내 화학업체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주력하는 것은 주 고객인 글로벌 기업의 주문에 따른 것
- 전세계 각국도 플라스틱 규제 강화. 유럽 및 일본도 재활용 비중 늘려

효성그룹의 화학섬유 계열사인 효성티앤씨는 지난 7월부터 제주도 등과 함께 페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한 뒤 이를 원료로 리사이클 섬유 브랜드인 리젠을 만든다. 가방 제조 스타트업인 플리츠마마가 이 섬유를 공급받아 가방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학업계가 올 들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페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불거지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주요 고객인 글로벌 기업들도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만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화학업체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LG 화학은 지난 7월 내놓은 '탄소중립 성장선언'을 통해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SK 종합화학도 20% 수준인 친환경 제품 비중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나경수 SK 종합화학 사장은 "환경 문제에 직면한 화학산업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3월부터 페페트병을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화학업체들은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SK 케미칼은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해 자체 개발한 리사이클원료인 '에코트리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에코트리아는 화장품 용기에 들어가는 투명 원료로 활용된다.

국내 화학업체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주력하는 건 고객인 글로벌 기업들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세계 최대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은 2030년까지 제품 포장에 플라스틱에 100% 재생원료를 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용기의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이키는 연내 50%, 아디다스는 2022년까지 100%를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각국도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화장품 용기를 비롯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을 5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활용해야 한다. 일본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을 60%까지 늘릴 계획이다.

페플라스틱은 파쇄 및 세척 작업을 거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 플레이크를 가공하면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된다. 문제는 국내에서 수거되는 플레이크의 오염이 심하다는 점이다. 각종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데다 이물질도 많이 섞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페플라스틱은 대부분 소각한 뒤 연료로 활용된다. 재활용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결과 페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든 섬유 등은 전량 수입된 재생원료로 제작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페플라스틱 수입량은 144만톤으로, 2017년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방치되는 페플라스틱도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배출 페플라스틱은 848톤으로, 전년 동기(734톤) 대비 15.6% 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고품질 원료 제작이 한층 더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